



노미후와 주리아...
well-being toon

웰빙 톤

길문섭/글·그림



새해엔 고생하는 아내에게 애정 담긴 전화를 해보세요.
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, 평생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.